



백봉 김기추 거사의 미발표 법문록



다시 읽는 효당 최범술 스님의 법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 ‘삼독심’은 버릴 것이 없다

#### 업의 당처가 빈줄 알아야한다 ②

실제 있어서 우리가 본래의 내의 그 자체성, 다시 말하자면 눈이 있는 자리, 눈은 보는 걸 뜻하는 건데 나중에 가서는 소명하게 합니다. 듣는 그 자리를 소명하게 말하면 망상과 망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걸 모르면, 이것이 어떤 반연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진짜와 같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회(訶)를 내보세요. 부회 낼 때는 부회하는 것이 진짜예요. 그것도 우연히 반연에 의해서 경계에 닿질리는 그 마음이 자기 마음하고 잘 안 맞은 말이죠.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지, 반연에 의해서 이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어디 망상이라는 것이 뚜렷하게 있어서 성내는 것이 아니고 또렷한 자리가 있고 웃는 것이 또렷한 자리가 있어서 거기서 나온 건 아니거든요.

실로 나중에 가서는 아까 반야경에 읽었습니다만 눈 귀 코 혀 몸 새김 거님도 없다는 것이 부처님 말씀인데 실로 나중엔 남득이 갑니다. 아, 그렇구나 남득이 가게 되는데 실로 우리는 하나의 반연에 의해서 좋다 나쁘다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연에 의해서 사실로 우리의 자성을 망쳐버립니다. 자성을 망친다는 건 내 부처를 자살시키는 거나 똑한가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로 해서는 이렇게 쉬운데 좀체 이놈이 잘 안 돌아옵니다. 암만 봐도 '내'거든요. 내 몸품이 이거, 자꾸 스스로 변하는 거 이거, 아무 것도 아닌데 암만 봐도 내거라. 그러나 사실 아는 사람의 분수라 보서는 암만 생각해도 내 것이 아니거든요. 지멋대로 변하는 거라 말이죠. 그리고 이거 자체성이 없는 것. 또 망상 망념을 일으킨다 해봅시다. 설혹 일으킨다 해봤든 그 어떤 반연에 의해서 그래서 성을 냈다 웃었다 할 따름이지, 본래 어떤 성내는 무엇이 있는 것도 아니라. 그것도 없는 거라. 실에 있어서. 그러나 요 대목이 말은 극히 쉬워도 극히 어렵습니다.

사실로 요 문제를 딱 해서, 여러분들이 알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실감있게 딱 알아서 나중에 가서는 망상 분별도 내가 쓸 수 있어. 어떤 때 망상도 한 번 부러 보는 거라. 알면서. 어떤 때 분별도 부러 보는 거라. 알면서. 이렇게 될 때까지는 말이죠. 참말로 상당히 수양을 해야 합니다. 수양 안하면 안 됩니다. 이 불법은 수양하는 겁니다. 우리는 새로 공부하는 각오를 해야

됩니다. 내가 절에 많이 다녔다 이거 다 그 생각 치워야 됩니다. 내가 책도 많이 봤다 그 생각도 썩 치워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 공부를 한다는 이런 전지 말에서 나간다면은 절에 있어서 한 일년 이년 다닌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몇 번 이래 듣는 것이 일년 이년 다니면서 공부할 때보다 그거보다는 훨씬 속 빠릅니다.

실로 나는 내 마음을 찾아야겠다. 진심을 찾아야겠다. 참말로 마음 찾아야 되겠다. 내가 삼독심을 버려야겠다 이래 하지 말고 삼독심, 어떻게 버릴 겁니까. 왜 그러느냐. 반연에 의해서 임의로 지가 만들어냈는데 삼독심이 어디 있을 턱이 있나. 없는 건데 허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듯이 일어나는 것인데 나중에 구름 사그라지면 그것도 없어지는 건데 어디 가서 삼독심 찾을까요? 또 그러면 우리가 진짜

“진심 구하기”는 허공 잡겠다고 말 타고 달리는 것과 같다  
물거품처럼 일어났다 사라지는 삼독심은 그 자리에 없는 것이다  
이 도리를 알면 법 굴리게 된다

심을 찾으라고 해 봅시다. 삼독심을 버릴라 해도 안 되지만은, 버릴 것이 없거든. 공연히 반연에 의해서 일어나는 삼독심인데 버린 버려요? 버릴 것이 어디 있나? 버린을 일으키지 않으면 삼독심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또 진심을 찾으라고 해봅시다. 어떻게 찾는다는 말이예요? 실은 찾으라는 그놈이 진심인데 그걸 놔두고 어떻게 찾는다는 말입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을 해 보세요.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젠입니다. 오래 들던 분들은 만날 하는 얘기 같지만 말이죠. 우리가 기초로 우리가 들어갈 때는 이거부터 확연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진심 못 찾습니다. 어디 가서 어떻게 찾는다는 말입니까. 빗발도 소리도 없는데 어디 가서 어떻게 찾는다는 겁니까. 어디 있길래. 허공을 걷어잡으라고 말을 타고 달리는 사람이나 폭한 가지라 말이예요. 어디 가서 진심을 찾을 거요. 그러면 버려야 말이죠. 어디 가서 진심 버릴 거요? 썩 걷어잡고 진심 버릴

거요? 자 그러면 마음자리가 없느냐. 마음이 없느냐. 그것도 아니네. 내가 마음을 맨날 쓰고 있네. 잘 쓰고 못 쓰는 그것만 다를 뿐이지 마음 늘 쓰고 있잖아요? 또 마음을 안 쓸 때는 또 없어. 아무 생각도 없을 때는 아무 것도 없어. 자, 이거 마음이 있는 거나 없는 거나.

그러나 저러나 허공을 찾는 사람과 허공을 뒤흔달라는 사람과 꼭 한가지거든요. 그 사람은 허공 속에서 허공을 찾는 거요. 또 허공 속에 앉아서 허공을 버릴라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요. 우리는 마음속에서 마음을 또 찾으려고 하고, 마음속에서 마음을 버릴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요.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도리부터 확연히 알아버려야. 이걸 알면은 사실 공부 반 이상 된 거나 한가집니다. 그 다음에 가서는 법을 굴리게 되는 겁니다. 얘기하는 자체가 내 자신이 법을 굴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허공을 버릴라 하는 사람이 돼서도 안 되고, 탐심이니 진심이니 차심이니 삼독심, 버릴라 하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그건 일으켰다 없앴다 지 마음대로 하는 건데, 원래 삼독심이 그 자리에 무엇이 있다면은 그것도 버릴 필요가 있겠어요. 버리지도 못하겠지만 삼독심이 어디 있나?

삼독심도 그 자리에 없는 것이거든요. 허필 삼독심이 있어요. 탐진치, 뒤흔 버린 단 말입니까? 물거품처럼 일어났다 없어졌다 일어났다 없어졌다 하는 건데 버린 버린 버린 말이예요? 차라리 버린다면 눈을 버린다는 말이나 꼭 한가지라 말이죠. 그러하니 꼭 허공을 버릴라 하는 사람이나 허공을 걷어잡으라 하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돌아가 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예요.

허공을 피할라고 했는데 허공을 피할 수가 있느냐. 허공을 잡으라고 했는데 잡을 수가 있느냐. 만날 허공하고 같이 있는데 하나의 사고방식에 따라서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망상을 방하착해야 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하니 우리의 마음자리 이 자리도 사실로 먼 곳도 아니고 가까운 것도 아니거든요. 왜 그러느냐. 말다 하면 끝없이 먼 거라. 우리가 마음을 찾아 나서면 허공 전체를 뒤져도 마음 못 찾. 왜 그러느냐. 찾는 그놈이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야 잘 했든 못 했든 찾는 그놈이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못 찾는 거예요.

백봉 김기추 거사 기법사업회 · 보림선원

### 뻘에도 뽕에도 사로잡히지 말자

#### 14-2 십념(十念)

그러므로 이 둘 다 참된 그 자리란 것이 워낙 하나뿐이지 그것이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지경을 원성실성(圓成實性)이라고 한다. 원만하게 알아 통통 찬 것을 알았다는 것이다. 참된 그 자리를 알았다, 바로 그런 자리다. 그래서 알았다는 이 자리에서는 즉한다는 엄을 버리고 오직 한 가지의 진리성만을 나타낸다.

공상역공에서는 참된 진리의 중도(中道)를 설명한 것이고 공공역공은 현실에 즉해서 중도의 원리를 말한 것이고 소공역공이라는 데서는 참된 것도 진리도 현실도 모두 다 아니면서, 이렇듯 모두 다 아닌 것이 완전히 우리에게서 파악되어지고, 실상인즉 그 내용은 한 군데도 기울어진 것만 없고, 또 그 꼭 들어맞는 중이라는 것도 없는, 가에도 중간도 아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편벽된 자리에서 벗어나 혹은 이것이 꼭 옳다는 그런 자리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닌, 그러면서도 오히려 참된 중도(中道)의 진리성을 설명하는 것이다.

원효대사의 이 철학은 그냥 논리만 따져 나가서는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인지 알기 어려울 것이므로 다음에 예를 들어 이해 본다. 불교의 계율에는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것으로 되어 있다. 술을 먹어서는 안 된다. 술이라면 나는 기어이 마시지 않는다. 술 먹으면 좋지 않은 일이 많다. 술에 취하면 황용 곤드레 만드레가 되어 아니 할 일을 저지르고 생떼 부리고 하는 것. 모두 안 될 일이 아니냐. 이것은 속에, 그러니까 현실에서의 중도의 뜻을 말하는 얘기다.

움하러 들고 나는 이 만큼이니 옳다고 하는 이런 것도 딱한 일이다.

그렇다고 나쁜 일을 해도 괜찮다는 소리가 아니라, 악이건 선이건 거기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것이다. 차라리 악을 잘 이해하여 때로는 그 효용성을 이용할 줄도 알아야 한다.

중생을 건지기 위해서나 또는 우리 국가사회를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충무공(忠武公)과 같은 행동으로 사람의 생명이 지도 뻗어가며 대의(大義)를 지킨다는 그런 생각도 해 봐야 한다.

또 이른바 악이라는 것 가운데에 드물게 선이 있을 수도 있고 흔히 우리 주변에는 번지레하게 가장 위선(僞善)이 보

“악 속에 ‘선’ 있을 수 있고 ‘선’에서 위선 찾을 수 있다.  
중생 건지기 위해 국가 위해 악을 잘 이해하고 그 효용성도 이해할 줄 아는 지혜 필요

인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우리의 유명한 문학 작품으로 춘향전(春香傳)이 있는데 춘향이는 기생의 집에 태어났다는 것. 천한 기생집 하던 월매의 벅속에서 났다는 것이 어찌 반드시 나쁘다고만 할 수가 있는가. 미천한 처지에 있는 사람 가운데서 연꽃과 같이 특 트인 인물이 나올 수도 있고 금지옥엽으로 자라난 임금이며 왕비며 하는 이들 중에도 해괴한 일이 생겨나고 또 별별 잡보가 다 있는 법이다.

이런 사리(事理)를 속속들이 다 알 수 있는 그 자리를 일컬어 이변이불착중(離邊而不着中)이라고 한다. 치우침도 없고, 중간도, 잡스런 것도 없는 그 옳듯한 진실성을 가르쳐 준다.

그러므로 우리가 염불 생활 하는데 있어서도 이것 저것 잡념이 많으니까, 업장의 소멸을 위해 무엇보다도 나무아미타불이라고 하자. 이것은 공상역공(空相亦空)이다.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던 극락세계

계에 가고 대자 대비에 접한다. 비록 하품, 하생일지라도 필경엔 상품, 상생으로 올라 우리는 왕생할 수 있다.

그러니 우리는 나무아미타불하자. 이것은 공공역공(空空亦空)이다. 극락세계에 가거나 왕생을 한다든 치더라도 우리가 그러한 왕생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중생에게로 나와 대자 대비를 베풀고 극락일 갔다, 중생에게로 왔다.

사바가 곧 극락이고 극락이 곧 사바일 수 있는 이것은 소공역공(所空亦空)이라 한다.

진(眞)도 아니고 속(俗)도 아닌 한군데 치우치는 일도 없고, 그렇다고 중도(中道)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는 진리의 생활을, 그러니까 보은 감사의 생활을 하는 것이 참된 염불 생활이다. 이렇게 말하다 보니 염불이란 것도 상당히 어려운 것이 되어 버렸다. 하지만 어떻게 어려운 것을 다 할 수가 있으랴. 여기에 좋은 방법이 있다. 그 어려운 것을 다 지루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온전한 생각으로 그냥 염불만 하면 되는 것이다. 우리가 그저 나무아미타불이라고 부르면 다 되는 것이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본다. 무거운 바윗돌을 두 사람이 목도를 한다고 하자. 그들은 목도를 해 돌을 옮기면서 연방 영치기 소리를 낸다. 돌을 메고 가는 데에도 무척 힘이 들 텐데, 또 입에서 소리를 낸다면 더욱 지칠 것이다. 옆에서 보아도 땀을 뻘뻘 흘리며, 짙어질라, 소리 낼라 힘을 배로 쓰는 것 같다. 목도를 하는 데에만 집중해야 할 힘이 두 갈래로 분산될 것만 같다.

실지로 물리 현상으로 본다면 틀림없이, 에너지의 발산이 어찌와 입으로 두 갈래로 분산되는 것이리라. 그런데도 ‘영치기 영차’ 소리를 낼라치면 피로한 줄도 모르고 새 힘이 솟아 나와 그들의 목도는 흥겹게도 그 소리를 맞추어 돌을 거뜬히 옮겨 가는 것이다. 이를 균호 맞춘다고 한다. 그런데 이 균호라는 것이 이틀이면 진언인 셈이다.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편자·효당사상연구회 회주 원희 채정복) 전 3권(민족사 7) 중 제 2권에서 발췌한 것임이다.

## 수행도우미

미국 FDA 등록인증 3009241067

	<b>발로해(두한족열양말)</b> 노폐물 독소 썩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b>자나깨나</b> 중단전 차크라 열고 목, 뒷골, 어깨 확 풀림 스트레스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感 체험
	<b>숨사라따</b>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 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b>호락호락 팬티</b> 배, 엉덩이, 골반, 허리 차가움 냉병 즉시 해소 노폐물, 독소 배출 왕~
	<b>보디스킨</b> 발목, 장단지, 허벅지, 엉덩이, 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세계최고! 다보명차, 슈퍼유산균 효소, 호두기름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 부산 동주대학교 평생교육원 불교학 야간반 모집

모집대상 : 남녀노소 누구나  
담임교수 : 민지효 스님

◆개강일시 : 2014년 10월 29일 오후 7시  
◆수강료 : 17분 5만원  
◆수강내용 : 사찰의 구조와 기본예절, 불교란 무엇인가, 스님들과 같이 하는 불경(동음창화) 기본염불 : 천수경, 반야심경, 종승, 칠정례, 향수해례, 사성례, 법성계, 약찬계, 발원문 등

염불하면서 내몸 치료하기 : 힐링치료 수행과 기도 위빠사나 천도재 등

◆접수처 : 부산 동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전화 051)200-3244 / 팩스 051)200-3420  
이메일 : ysm7487@lycos.co.kr  
민지효 스님 : 010-4466-3575  
주소 : 부산 사하구 사리로 55번길 16 (괴정동)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신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극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 (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영산재 보존도량 봉원사 경내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00~9:00  
■ 수강대상 : (1) 범패소리 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모든 분 (2)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육천법음대 졸업, 중앙승가대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영산재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소장: 처명)